한국의 불교와 유교

Buddhism and Confucianism in Korea

1주차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특징

권기완 교수(문광스님)

목 차

Ⅰ 학습안내 ····· 2

Ⅱ 강 의 ····· 4

1-1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핵심
1-2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1-3 한국학으로서 불교와 유교의 심학적 특색
1-4 심성론과 성정(性情)의 문제
1-5 한국학에서 다루는 정(情)의 문제

Ⅲ 퀴 즈 ····· 24

Ⅳ 참고문헌 ····· 26

Ⅰ. 학습안내

1 강의개요

한국불교와 한국유교 전체를 조감했을 때 그 공통적 특징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고찰하여 중국, 일본과 차이나는 독창성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전 세계가 한류라는 한국문화와 예술에 대해 관심이 고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신의 근원이 되는 불교와 유교의 한국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도 한다.

2 학습목표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역사에서 공통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결론적 특징과 원효, 의상, 퇴계, 율곡으로 대표되는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대표사상가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한국의 불교와 유교의 대표적인 논쟁사인 돈점논쟁, 사단칠정논쟁, 호락논쟁의 대강을 이해하고, 불교와 유교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불교와 유교의 특질을 이해하고 한국학의 특색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1주차 학습목표

1. 한국학의 핵심은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이다.
2.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특징을 파악한다.

4 주차별 강의주제

1주차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특징
2주차	불교와 유교가 말하는 중(中)
3주차	불교의 중도(中道)
4주차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결론적 특징
5주차	한국불교의 고승들
6주차	한국유교의 대사상가들
7주차	한국불교의 대표논쟁인 돈점논쟁의 이해
8주차	한국유교의 대표논쟁인 사단칠정논쟁과 호락논쟁의 이해
9주차	한국불교의 문화와 특징
10주차	한국유교의 문화와 특징

Ⅱ. 강의

1-1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핵심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저는 한국의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의 스님이고요. 저는 해인사라고 하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찰에서 출가를 해서 문광이라는 이름은 출가를 하고 나서 받은 법명입니다.
제가 한국의 불교와 유교를 강의하게 됐는데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 한국의 유교를 비롯해서 동양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출가하고 나서 다시 불교를 처음부터 공부해서 한국의 불교와 그리고 한국의 유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석사, 박사 학위 논문들을 다 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불교사와 우리 한국의 전체 역사,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의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강의를 저의 방침은 전체적으로 커다란 시각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각과 관점과 안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불교와 유교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국학, '코리안 스터디즈(Korean studies)'라고 하는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한국의 정신문명이 무엇이며 한국의 사상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한국의 정신문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학의 핵심은 역시 한국 불교와 한국의 유교가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핵심을 알게 된다면 한국의 사상을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류의 열풍이 있는데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 미학 이러한 부분들에 뿌리가 되고 기반이 되었던 그런 사상이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근본에는 불교와 유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불교와 유교는 공통적인 것인데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는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와 유교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강좌는 한국 불교와 한국 유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공부의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중국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본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인도에서부터 남방 불교도 있고 티베트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 퍼져 있는 모든 불교의 핵심 내용들을 다

공유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특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리고 한국 유교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망해 봤을 때 '유교냐, 불교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한국적인 한국만의 특색은 혹시 있지 않을까. '유교냐, 불교냐.'를 떠나서 한국의 불교가 전래되고 한국의 유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이라는 땅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한국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지 한국적 특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국과 일본을 흔히 동아시아로 같이 엮어서 세계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학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요. 한국의 정신문명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자 했을 때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인 공부의 목표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스님이 돼서 흔히 '너의 전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불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많은 한국 불교사의 시대 구분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어디가 전공이냐?' 그러면 저는 박사 논문은 한국의 근현대 불교사의 많은 큰스님들을 연구했고 그중에서도 탄허 스님이라는 분을 연구했습니다.

탄허 스님이라는 분은 1912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입적하셨는데요. 유교의 선비로서 유교의 사서삼경을 다 외우시고 출가해서 불교 공부를 다 마쳤고 그 사이에 출가하기 전에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의 공부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와 유교를 공부를 다 같이 하셨던 분이고 그분을 제가 연구해 봤는데 저도 예전에 탄허 스님과 비슷하게 어려서부터 유교를 공부했고 한국의 불교를 공부하고 선원에서 정진도 해 보고 학문적인 공부도 해 보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국학이라고 하는 전통이 공부하기 힘든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정신문명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쉽지 않느냐 하면요. 불교를 공부하려면 인도 불교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불교도 알아야 되고 우리 한국에서 펼쳐지는 것을 다 알아야 되며 그 자료들이 한국에 없는 자료들이 또 일본에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전해 준 어떤 그런 사상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문화재라든지 불교 문화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함께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공부한다는 것이, 한국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산업화, 민주화, 근대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급격히 변화가 됐고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에서 한국을 공부하려면 동양학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만의 특색을 추출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한국학이고 한국 불교요, 한국 유교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돼서 세종대왕 때의 한글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미 우리가 쓰는 한글이 그때 만들어져서 조선조의 지금 500년가량 한글을 써오고 있어서 한자와 한글이 함께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구성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우리의 세대는 한글 전용을 하고 한문을 많이 쓰지 않고 한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지난 세기에 비해서 못 합니다. 100년, 200년 전에만 해도 한자나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못한데 이러한 필로로지(philology), 문헌학적인 기반이 좀 약하다 보니까 한국만의 독특한 사상이 그 이전에 전부 한자 문명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 한국인들은 한국의 고전들, 한국인들이 500년 전, 1000년 전에 써놓은 문헌들을 쉽게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많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을 꿋꿋하게 이어서 정진하고 그다음에 연찬해 왔던 많은 역사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국학이라는 차원에서 한국학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된 20세기의 양상을 함께 보시면서 현대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세상에 적응하고 있죠.

동양과 서양이 통합되면서도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신문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가능하며 세계의 많은 이런 철학이나 사상 연구의 그러한 전래를 모범을 삼아서 '한국 문명을 어떻게 또 한 번 공부해 볼 거냐, 어떻게 연구해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과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유교 공부를 하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비로소 한국의 유교와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하고 있게 됐지만요.

'한국인이 한국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인도 한국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의 정신문명과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확고히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난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 문명, 중국의 불교의 문화, 유교의 문화가 어떻게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해서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대에까지 이어져 왔는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공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학 그리고 한국 사상은 불교와 유교에서 7, 8할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사와 한국 유교사를 다 보고 그걸 회통해서 함께 어울러서 융복합적으로 연구를 할 때 한국의 정신문명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국을 알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한류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났느냐고 하는 그 근원을 좇아 들어가다 보면 한국 불교의 역사와 한국 유교의 역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신문명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사상과 형태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한국학의 핵심을 추출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너무나 많은 내용이 이 속에 혼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보아야 될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 다른 사상 체계인 듯하면서도 한국인이라는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재해석됐으며 그리고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유사한 시각으로 불교와 유교를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들은 불교와 유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핵심 되는 불교와 유교의 내용들을 한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한국의 스님들과 한국 최고의 사상가들 그리고 선비들 그러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걸 보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러한 특색이 중국과 일본 불교와 어떻게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국의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두드러지는 특색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제가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가 서로 다른 사상 체계인 듯하면서도 그 핵심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국적 특색으로서 회통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불교와 유교는 결국에는 '마음 심' 자, '배울 학' 자, 결국 심학(心學)적인 형태에서 만나게 된다.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에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서 공부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의 불교와 유교를 알아야 한국의 정신문명과 한국의 근본적인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의 불교만 공부하려고 해도 한 평생을 다 바쳐야 되고요. 한국에 유교만 공부하려고 해도 한 평생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알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공부할 것이 많고 역사가 깊고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가 어떤 측면에서 가장 공통점으로 만나고 있느냐. 우리가 '일단 핵심을 요약해서 한국 불교와 유교의 정신을 하나로 좀 뽑아봐라.'라고 한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는 또 스님이고 유교를 공부했다가 불교를 공부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제가 봤던 한국의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저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끝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불교와 유교는 '마음 심' 자, '배울 학' 자, 심학(心學)으로 그냥 설명이 가능하겠다. 한국의 불교나 한국의 유교나 핵심은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불교도 자리이타(自利利他),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유교도 동일합니다.

세간에서 즉 세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진리를 탐구할 거냐, '극고명(極高明)이 도중용(道中庸)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유교 '중용'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깊은 경지에까지 도달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잘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유교에 대해서는 치세(治世), '다스릴 치' 자, '세상 세' 자,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유교가 가장 좋고', 치심(治心), '다스릴 치' 자, '마음 심' 자,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불교가 가장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나 두 거대한 공부의 내용 중의 핵심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걸 수행을 하고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선용기심(善用其心),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마음을 잘 쓸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성현지학은 심성이이(聖賢之學 心性而矣)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인들과 현자들의 학문은 한마디로 '마음 심' 자, '성품 성' 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성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나 사상이나 학파와 상관없이 이 세

상의 모든 성현이라고 하는 분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마음 심' 자, '성품 성' 자, 이 두 가지에 다 녹아 있다.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며 인간의 근본 본성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세상에 밝혀서 쓸 것이냐, 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의 불교와 유교, 이 '마음 심' 자, '성품 성' 자에 그 핵심이 있지 않느냐. 일단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가지와 곁가지에 붙어 있는 많은 디테일한 사상 체계와 내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심'은 무엇이며 '성품 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팔만대장경 전체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도리라고 했습니다.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우주 법계 전체가 '마음 심' 자 하나로 다 표현된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다섯 글자로 화엄경이 있는 구절로 불교 팔만대장경을 다 요약하기도 하고 그걸 딱 요약하면 두 글자입니다. '유심이다, 오직 마음이다.' 그렇게 두 글자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이해를 조금 하려면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논쟁했던 부분에서 그 논리를 조금 가지고 와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고 한학을 공부해서 한문을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유교의 사서삼경부터 먼저 공부하고 한학적 기반 위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사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유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조금 끌어와서 '마음 심' 자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심'은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고 그래서 '마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 성' 자와 '감정하는 정' 자를 통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 유교 500년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성리학의 주자학이라고 하는 주자가 만든, 주희가 만든 주자학적 전통에 입각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일심은 대승기신론에서 보면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성품이고 이게 진여니까 이게 '성품 성' 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생멸문은 '생활 생' 자, '멸할 멸' 자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감정할 때 정' 자를 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기신론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합해져서 일심을 만들어낸다, 일심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 유교에서는 심통성정이라, '마음 심'은 '성품 성' 자와 '감정의 정'으로 합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원효대사, 우리나라의 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승기신론을 가지고 불교학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일심의 문제이다. 결국은 불교의 전체 내용은 '마음 심' 자 하나를 보는 것인데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다. 영원히 불변하는 인간의 불성이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항상 갖추어져 있는 우리에게 본래 부처의 불성 자리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 게 '성품 성' 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고 번뇌, 망상도 일으켰다가 온갖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생멸문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불교와 유교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우리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는데 대부분의 논쟁이 '마음 심'과 관련해서 '성품 성' 자와 '감정의 정'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학파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백 년 동안 성정, '성품 성' 자, '감정 정'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수백 년 벌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국의 정신문명은 전 세계의 문화와 예술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한류의 근거가 되는 한국학의 중심적인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벌어졌던, 유교에서 벌어졌던 그런 논쟁들이 탁상공론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을 어떻게 수기치인(修己治人),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 정치를 다스려 나갈 것이냐고 하는 부분의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인간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성품 성' 자와 '감정 정' 자를 가지고 본다는 거는 불교와 유교가 공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성품 성' 자와 '감정 정' 자를 이야기했으니까 성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성품 성' 자와 '감정의 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먼저 조금 보고 '이것을 불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시자고요.

중국의 남송 시대의 주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200년에 세상을 떴어요. 이때 그분의 학문을 '주자학'이라고도 하지만 '성리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에 나오느냐, 성즉리(性卽理)라고 하는 말에 나옵니다. 유교 사서 가운데 '중용'의 첫 구절,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하늘에서 명한 것을 '성품 성' 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의 주석을 주자는 성즉리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곧 '리'인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와서 성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여러분 이 '리'라고 하는 말을 천명지위성, '하늘에서 우리가 명령받듯이 품부받아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성품이라고 한다.' 사서의 중용에는 그렇게만 돼 있는데 12세기를 살았던 주자가 '성즉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주석을 단 것은 이건 불교적인 수사를 가지고 와서 주석을 단 겁니다.

여러분, 화엄경에 보시면 리법계라고 하는 게 있고 사법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라고 하는 건 이치요, 진여입니다. 이것을 바로 불교의 '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사'라고 하는 '일 사' 자가 있어요. '일 사' 자는 말이죠, 이것이 생멸문이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사법계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묘유의 세계입니다.

'리'와 '사'라고 하는 거는 진공과 묘유의 세계인데 묘유의 세계는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지고 생겨나고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근본 이치, 진여의 이치 '리'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리'와 '사'의 문제 리법계, 사법계, 이사무애법계라고 하는 화엄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주자는 성즉리라고 주석을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리

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리'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기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 기' 자의 '기'를 써서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의 리사의 문제를, 불교에서 말하는 리사의 문제를 기의 문제로 변환시켜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게 주자가 12세기 당시의 모든 선비들, 지식인들이 불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내용으로 오히려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유학에서 심통성정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성품 성' 자와 '감정 정' 자를 통합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한 것에서 성즉리라고 주자가 주장했던 것은 '성'을 중시한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것이니까 늘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좋았다 싫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니까 불변하는 '성'을 중심에 놓고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근본성으로 돌아갈 거냐,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근본 성품으로 자꾸 돌아가자. 그래서 복성서라는 '회복하다' 할 때 '복' 자, 복성서라는 책도 있고 이것을 불교의 불성과 동일하게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는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맹자의 성선설, '누구나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자학과 양명학이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심' 자와 '성품 성' 자가 다르다는 걸 아셨죠. '심'이라고 하는 건 '성'과 '정'을 다 포함한 말이고 '성'이라고 하는 거는 심 가운데 핵심적인 근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심즉리(心卽理)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과 '정'을 합한 심이 곧 '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이 나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이 '리'인 것인지 '성'이 '리'인 것인지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유교의 논쟁을 가져와서 불교를 한번 다시 보고 한국에서의 불교와 유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한국학으로서 불교와 유교의 심학적 특색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한국의 불교와 유교,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처음부터 개론적으로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바로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의 공통점은 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해서 좀 낯설고 당황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시면 불교와 유교를 서로 함께 공부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학문의 핵심 종지,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는 것이 공부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굉장히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국 불교와 유교의 핵심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점점 설명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증폭되어 나갈 겁니다. 그 부분들을 꾸준하게 보시면 '하나의 근본적인 뿌리에서 나온 나무 둥치 전체를 통해서, 가지들을 통해서 세부적인 잎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한번 다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으나 꾸준히 저와 함께 따라가 본다면 나중에 이해가 잘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학의 핵심, 한국의 불교와 유교의 핵심은 일단은 우리는 '마음 심' 자, '배울 학' 자, 심학(心學)에서 보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심학의 범주 속에는 결국 두 가지로 나눈다 심통성정(心統性情)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성품 자리와 그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정'의 문제, 유교에서는 '성'과 '정'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불교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근본 불성과 그다음에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어 있는 감정들.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국의 유교에서 조선조 500년 동안 펼쳐졌던 한국 유교의 역사 가운데 중국에서는 주자학도 있고 양명학도 있고 왕양명이라고 하는 분이 명나라 때 등장해서 양명학을 펼쳤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양명학을 배척했습니다. 성리학만 숭상하고 양명학은 배척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유를 잘 알게 되면 한국의 유교와 한국의 불교의 특징이 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성리학만 숭상하고 양명학은 배척했다는 것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크게 다른 특징이 되거든요. 한국 유교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저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잠깐 볼게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원의 한족, 중국 전통의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한족과 다른 이민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

이 있고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국을 이루고 있듯이 중국은 본래 한족과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 간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통일을 해서 영역을 넓혔다가 다시 분열이 됐다가 일치일란(一治一亂),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지는 일치일란의 역사를 쭉 이어왔는데 지금은 통일돼서 큰 나라가 되어 있죠.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족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왕조가 있고 한족이 아닌 민족이 중국을 차지해서, 중원을 차지해서 나라를 이끌어 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민족이 들어와서 중국을 지배했던 대표적인 예가 몽고가 들어와서 원나라가 중국을 다 한 번 차지했던 적이 있었고요. 청나라, 그렇죠? 청나라가 들어와서 청나라가 바로 여진족이 들어와서 청나라를 세우고 중심적인 패권을 잡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면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한족의 입장에서는 원나라와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순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중국 한족이 생각했을 때 자기네들의 학문과 이민족의 학문을 구분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서는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똑같은 주희가 만들어냈던 성리학이나 왕양명이 창시했던 양명학이나 둘 다 동일한 유교, 유학이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한족의 중화사상에 입각한 학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송 시대의 주자나 명나라 때 왕양명이나 동일하죠. 그리고 남송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 송나라가 반이 북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남하해 있었기 때문에 주자 같은 이도 중국 중원을 전체 회복하고 싶었던 민족의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좀 배척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국학을 세우자는 뜻으로 성리학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불교를 배척했던, 주자가 배척했던 이유가 거기 있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족이 다시 중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남송 이후에 다시 몽고가 전체 중국 중원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는 선비가 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10가지 단계가 있으면, 계층이 있으면 아주 9등급 정도 되는 선비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아주 몽골의 대원 제국에서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드라마 작가가 돼가지고 원나라 희곡 작가들이 됐습니다. 소설 같은 연극의 대본을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냈죠.

그러다가 다시 명나라가 돼서 한족이 중심이 됐습니다. 한족이 중심이 되고 난 다음에 양명학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송 시대 주자의 성리학이나 원나라 이후에 다시 중원을 회복해서 명나라가 들어와서 양명학이 발전했으니까 둘 다 중국학이죠. 중국의 한족의 민족학이고 중화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중심적으로 발전만 시키고 양명학은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멀리 배척했던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느냐 하면 고려 시대 때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고려를 역성혁명으로 성을 바꾸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전주 이씨가 이씨 왕조라고 하는 형태로 세우게 되면서 이때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는 그런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교를 배척하면서 양명학도 함께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명학은 왕양명이라는 분은 굉장히 불교적으로 깊이 있는 용장에서 오도를 했다고 하고 굉장히 성리학보

다 더 깊이 불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조선에서 양명학을 배척한 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이 양명학도 유학인데 왜 배척을 했느냐. 양명학을 더 선양을 하고 문호를 열어주면 양명학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불교와 선적인 형태로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억불숭유라고 하는 조선의 건국 이념과 맞지 않지 않았느냐. 왕조를 세웠을 때의 첫 뜻과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유교에서도 성리학만을 독존, 성리학만 주장하게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교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성'만이 '리'라고 했고 왕양명은 '마음 심' 자에 '성'이 있고 '정'이 있는데 진여문과 생멸문, '성'과 '정'을 다 합한 '심' 그대로가 '리'이다. 그 자체가 '리'라고 했던 왕양명의 견해가 조선 유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당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한국의 유교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의 유교는 '성품 성' 자 '성'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배척하거나 다스려야 되고 굉장히 인정해 주지 않는 형태가 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심즉리(心卽理)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명학이 심즉리라고 그러면 감정이 일어난 것도 그것도 본래의 이치이다. 그것도 진여가 될 수 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도 결국 반야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 자리에서 변해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좀 양명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마음이 개방하는 마음이 많죠. '그것도 진리야. 미워하고 싫어하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것도 인간의 근본 마음이다. 그걸 인정하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양명학이 될 수 있다면 성즉리(性卽理)만 주장한다면 '희로애락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근본 성품이야.'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가 다소 좀 딱딱하고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성즉리냐, 심즉리냐, 주자학이냐, 양명학이냐, 둘 다 인정하느냐, 아니면 성리학만 인정하느냐. 양명학은 인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봤느냐, 이거에 많은 학문적 전통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조선 시대는 양명학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선 유교의 최고봉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은 가장 강조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심경부주라는 책을 강조했어요. 심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반야심경의 심경하고 다르고 유교에 있는 책들 가운데 마음에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심경이에요. 거기에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심경부주거든요. 그 마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전부 경전에서 발췌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사실은 주자학 계통의 학자가 만든 책이 아니고 양명학 계통의 학자가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리학이라기보다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심학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퇴계 이황 선생은 철저한 주

자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경부주를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사회는 성리학적 사회지만 '심'을 중시했다, 심학을 중시했다. 결국 마음의 문제가 인간 근본의 문제다. 그래서 '성즉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즉리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와 사상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조가 유교가 성리학 일변도로, 주자학 일변도로 갔지만 양명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소론 계통에서는 양명학 학자들이 제법 많았고요. 원교 이광사라고 대흥사에 가면 대웅보전 현판에 글을 썼던 명필, 원교 이광사 선생이나 근대의 위당 정인보 선생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강화도를 중심으로 하는 강화학파 이런 분들 대부분 양명학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리학이 성즉리만 강조했지만 조선조 유학도 알고 보면 심학적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고 '이 부분이 불교와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심성론과 성정(性情)의 문제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불교에서 다루게 될 문제들 가운데 '심학(心學)의 문제, 이것이 조선조 500년 동안에는 어떻게 펼쳐졌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불교는 어렵고 유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자, 한문을 공부할 때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유교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왕조가 조선조가 유교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불교의 전통까지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확고하게 해놓으면 그다음 부분부터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중국의 유학이다, 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리학과 양명학, 주자와 양명의 사상을 다 중국 한학적인 전통, 중국 유교의 전통, 중국학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서는 성리학을 유교로 받아들이고 양명학은 같은 유교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중국적인 형태로 보였던 것이 동일하게 성리학과 양명학이 같았던 것이고 한국에서는 고려라고 하는 불교를 유교인 조선으로 역성혁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불교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양명학을 배척하고 숭유억불을 하다 보니 성리학 일변도로 가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두 가지 양상들이 한국과 중국 유교의 어떤 변화와 어떤 다른 특징을 나타내게 됐느냐. 성리학에서는 성즉리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성품 성' 자와 '감정의 정' 자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걸 '마음 심'이라고 하는데 성리학에서는 오직 '성품 성'만 진리에 해당한다. '리'에 해당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았던 때, 옳았던 때도 있지만 안 좋고 불안하고 바르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건 해결해야 될 과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우리 불교에서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 생각을 번뇌, 망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스려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전부 다 좋은 것으로 보지 않고 휘둘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마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즉심시불(卽心是佛)이다,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 전체가 다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명학적인 관점입니다. '성'과 '정'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 그대로 부처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양명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심즉리이

다, '성품 성' 자와 '감정 정' 자를 합한 '심' 그대로가 '리'라고 하는 거였는데 조선조에서는 양명학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심즉리는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요소,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요소의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배척하고 다스려야 되고 감정을 많이 일으키면 안 되는 그런 양상이 됐죠.

임금님들 쓰고 있는 여기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구슬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거,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임금이 사사로운 감정을 자꾸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은 '성품 성' 자에 입각해서 '부동심의 핵심 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지 자꾸 감정에 휘둘리면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감정에 끌어당기다 보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리학적인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조선조가 운영됐던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조선 시대에 있었던 모든 논쟁들이 심학적 논쟁이다. '성품 성' 자와 '감정 정' 자 그리고 '마음 심'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조선조 500년의 중요한 논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 같은 게 조금씩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조선조의 핵심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 심' 자, '심학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야기했는데요. 조선 시대의 최대의 논쟁 가운데 하나가 사단칠정 논쟁이고요. 그다음에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조선조 3대 논쟁 가운데 하나는 또 예송논쟁인데 예송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예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선조 유교의 3대 논쟁은 사단칠정 논쟁과 호락논쟁과 예송논쟁 가운데 사단칠정과 호락논쟁, 이 두 가지는 결국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볼 거냐. 심을 어떻게 볼 거냐, 성과 정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것의 사단은 말이죠. 맹자에 나오죠, 맹자에 나옵니다.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사단이거든요. 인의예지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 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주자죠. 주자학적 기본에서 '성'입니다.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는 '성'이니까 '성품 성'이니까 성즉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의예지는 '리'가 되죠. 이건 진여문이에요. 인간이 '어질 인' 자, '의로울 의' 자, '예의할 때 예' 자, '지혜 지' 자, 이 네 가지는 바로 인간의 근본 성품이고 이것을 잘 기르고 보존해야 된다. 이걸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만이 '리'라고 하는 게 성리학적 전통입니다.

그러면 칠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흔히 희로애락이라고 하는데요. 사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라고 해서 칠정입니다. '두려워할 구' 자, 그렇죠? '슬퍼할 애' 자 그다음에 '사랑할 애' 자, 이런 부분들, '미워할 오' 자 이런 거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라고 하는 게 칠정인데 이 칠정은 뭡니까? 감정은 '리'가 아니잖아요, 성리학적인 전통에서는 '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죠. 그냥 '기'입니다, 기.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생멸하는 것이에요. 이건 진여가 아닙니다,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의 그 감정 가운데 감정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죠. 바른 것 그리고 부정, 바르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이런 거죠. 인

의예지, 사단이라고 하는 성은 항상 간직해야 될 거고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라고 하는 칠정, 희로애락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길러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이 번뇌를 끊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사단칠정 논쟁입니다.

퇴계 선생과 기 고봉의 논쟁, 리기의 문제, '리'라고 하는 것도 퇴계는 리발(理發)이라고 그랬거든요. '리'라고 하는 것도 '바란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없었던 이만큼 깊은 이기론적인 논쟁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교의 특징입니다. 퇴계와 기 고봉 간의 논쟁 그다음에 율곡과 우계 성혼, 성 우계라고 하는 분과의 논쟁 이런 부분들이 사단칠정 논쟁이 됐어요. 여기에서 동인과 서인이 나뉘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견들이 나뉘게 됩니다.

나중에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 나뉜 그 이후에도 벌어진 게 또 호락논쟁이라고 해서 호학파와 낙학파가 서로 논쟁을 하는 부분도 이것이 더 발전한 겁니다. '성품 성' 자 가운데 성즉리인데 '성'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옳은 거냐, '성' 안에 또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순선이다, 순수하게 좋은 거다. 그 속에 또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마음의 문제, 성품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의 불교와 유교는 결국 심학이다. 마음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성품 성'과 '감정의 정' 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너무 딱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초코파이에 적혀 있는 '정'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학을 하고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펼쳐졌어요. 그러는데 이 한류에서요. 대부분 중국과 일본인과 다른 한국인의 정서와 특징으로 뽑아내는 게 '한국은 정이 많다.'예요.

시조에도 나오죠.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 정 많은 게 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단칠정 논쟁이나 호락논쟁 같은 것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의 문제가 논쟁이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한국인이 무심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이 너무나 풍부하고 정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한 정의 문제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긴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의 중요한 쟁점이 됐던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누구나 다 군대 가면 먹었던 초코파이에 '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 '정'이라는 글자는 배척해야 되는 글자임에는 틀림없어요,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성품 성' 자를 쓰지 않고 '감정 정' 자를 써놓고 우리는 서로 정을 주고받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가 지금 봐도 조선 500년의 논쟁은 무색하게도 저게 좋은 글자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정이 많고요, 어디 가도 잘해 주고요, 친절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냉정하지 않고요, 중국인보다 깔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요소가 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성'과 '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에서도 논쟁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초코파이가 중국에 수출이 됐어요, 수출이 됐는데요. 수출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변했느냐 하면 저 초코파이의 '정' 자가 정을 쓰지 않고 '어질 인' 자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성리학적인 형태죠. 중국인들이 '감정 정' 자를 쓰지 않고 '어질 인' 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중국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양명학의 심즉리까지 인정해서 유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과 '정'을 다 통틀어서 '심'을 보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게 바로 중국학적인 전통이었어요. 성리학과 양명학을 합쳐서 중국 유학이라고 인정하고 '성'과 '정', '심'을 전체로 인정하는 것까지 다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인'을 썼고요.

우리는 양명학을 배척해서 감정을 극히 두려워하고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정'을 대두시켜서 한국인의 감정과 정서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 세계의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부분들에 나타나는 가사들이 '성품 성' 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인간의 감정, 기쁘고 슬프고 울렸다 웃기고 그다음에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다각적인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다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의 가사들이 될 텐데 그러면 한국인은 지금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주로 '정'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학적인 전통 그 다음에 '성품 성' 자라고 하는 거와 '감정의 정' 자를 어떻게 우리가 논쟁을 해서 해왔더냐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유교의 성리학적 특징을 통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특성을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죠. '성'과 '정'의 문제를 조선조는 500년 동안 탐구하고 논쟁을 벌여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이 배척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는 한국 불교에서는 '성'과 '정'을 합한 '마음 심'이라고 하는 심학의 전통이 결국 우리 한국의 특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한국학의 한 특징이자 한국인의 한 특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대 한국 문화와 한류를 통해서 한번 다시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유교와 불교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한국학에서 다루는 정(情)의 문제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한국의 불교와 유교,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고 있는 주제는 '한국의 불교와 유교는 심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한국 불교와 유교의 중요한 주제이자 논제가 됐었던 것이다.

조선조 500년의 유교도 결국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한 방점이 달려 있었던 것이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행했던 불교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이 다섯 글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 줄여서 '유심, 오직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진리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유교와 불교가,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한국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먼저 한국의 유교에서 말하는 심통성정(心統性情), 마음은 '성품 성' 자와 '감정의 정' 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합해서 설명할 때 '마음 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마음 심'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르게 보시죠. 육식, 칠식, 팔식, 안, 이, 비, 설, 신, 의 했을 때 의식을 뺀 안, 이, 비, 설, 신은 전 오식, 앞에 있는 다섯 가지의 식이고 감각 기관에 의한 식이고 육식부터 의식이 되고 칠식, 말라식, 팔식, 아뢰야식까지 쭉 해서 심, 의, 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설명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먼저 한국의 불교와 유교를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자체를 일단 한국 유교에서 500년 동안 논쟁했던 심성, '성품 성' 자, '감정 정' 자라고 하는 형태로 한번 보면서 살펴보자는 것이었죠.

어떻습니까? 좀 아이러니가 있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유교다, 그러면 성리학과 양명학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데 조선조의 유학은 양명학은 배척하고 성리학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성리학만 주장하게 되면 성즉리(性卽理)가 돼서 감정은 '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양명학은 심즉리(心卽理)니까 심통성정이니까 성품과 감정이라고 하는 걸 다 합해서 '심'으로 보아서 그것을 '리'라고 보고 있지만 성리학에서는 '감정은 다스려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잘 관리해야 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희로애락,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의 칠정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리학만 위주로 해서 500년 동안 우리가 조선조에 발전을 시켜왔어요.

양명학을 하면 사문난적이다.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다시 불교 세계로 넘어갈까 봐, 고려라고 하는 왕조로 복귀할까 봐 좀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그냥 성즉리로 밀

고 나가면 되는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단칠정 논쟁과 그다음에 호락논쟁을 통해서 성정의 논리는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논쟁으로 나타났고 여기에서 우리 조선 시대의 사색당파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양명학과 주자학 다를 유학으로 받아들였던 중국에서는 오히려 초코파이의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국의 '정' 자를 '인'으로 바꿔버렸다. 그렇다면 그걸 보면 중국인들은 역시 '감정의 정' 자를 그다지 좋지 않게 보는 성리학적인 전통이 의외로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중국의 근대 신유가 십철이라고 해서 대단한 학자들은 양명학 전공자들이 많고 양명학을 통해서 불교와 접목해서 동양학, 중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조금 아이러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지금 한류의 양상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류의 양상들은 알고 보면 이러한 심학(心學)적 전통에서 '성'과 '정'을 어떻게 볼 거냐고 하는 그런 문제의 논쟁들이 현대의 문화와 예술과 미학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교는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한국 불교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경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직 마음이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심학적 전통이 유교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조선조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성리학을 중시해도 감정의 문제를 절대로 도외시 하지 않았던 다정다감한 다정이 병인 그런 게 우리 한국인의 특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심학을 전통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의 정신문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심학적 전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불교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성철 스님이 고려의 보조 지눌 국사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이야기했던, '단박에 깨달아서 점차적으로 닦는다.'라고 하는 게 돈오점수인데요. 돈오점수의 전통이 이야기했던 바가 방편설이다. 핵심은 돈오돈수(頓悟頓修)다.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깨친 내용이 돈수, 단박에 다 닦아지지 않으면 돈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성철 스님이.

그래서 돈오돈수가 아니라 돈오점수가 맞다고 이야기해서 벌어졌던 근현대의 커다란 우리 불교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돈점 논쟁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논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근현대에 펼쳐졌던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도 불교 안에서의 논쟁만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조 유학에서 있었던 사단칠정 논쟁이나 호락논쟁처럼 우리 불교에 있었던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논쟁 역시, 돈점 논쟁 역시 결국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심'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마지막 심통성정에서 '성품 성' 자와 '감정의 정' 자인데 '감정의 정'이라고 하는 이 미세망념. '이거를 어디까지 해결해야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단칠정 논쟁도 결국은 돈점 논쟁으로 환원할 수 있고 돈점 논쟁도 돈오점수, 돈오돈수의 문제도 '성품 성' 자, '감정의 정' 자, 심학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깨닫는 거냐, 감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돼야 깨달은 거냐, 진정한 돈오냐, 견성이냐, 이런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오매일여(寤寐一如)다, 동정일여(動靜一如).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쭉 지속이 되는 것이 유지가 되다가 오매일여, 꿈을 꾸거나 잠을 자거나 일어나서 움직일 때 말고 잠이 들었을 때도 이러하게 쭉 지속이 된다. 말하자면 '감정 정'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품 성'의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만이 깨달아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거나 숙면 시에도 숙면일여(熟眠一如)가 돼야 된다. '감정의 정' 자가 완벽하게 미세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삼매가 지속돼야 그걸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화두가 박살이 나서 깨쳐야 견성이 된다고 봤던 거니까 결국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교의 논쟁과 유교의 논쟁이 결국 마음의 문제, 심학의 문제, '성품 성'과 '감정 정'의 문제, 이걸 불교적으로 환원시키면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문제. 생멸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생멸하는 번뇌를 어떻게 이걸 다스리고 관리할 거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심학으로 걸었고요. '마음 심'은 '성품 성'과 감정적으로 나뉘었고 이거는 대승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마음을 보는 관점은 '정'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논쟁을 했었다는 거죠. 그거는 한국적 특색입니다.

한국인은 다정해요, 정이 많아요, 감정의 문제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이게 냉정하지 못해요. 냉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감정을 얼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인은 '정'의 문제가 유사 이래로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조선조 성리학이 너무나 감정의 문제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딱딱하다든지 그리고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가 된다든지 근본주의자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했을 만큼 그러한 양상들이 현대에 와서는 전 세계의 모든 문화 예술에서 감정의 문제가 펼쳐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거기에 또 '성품 성' 자, 인간의 근본 감정이 뭐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에게 불성이 있고 우리에게 진여가 있다. 우리에게 사단칠정 했을 때 사단,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본래 갖추어져 있다. 하느님에게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 우리의 본래면목에서 여래장(如來藏)이 있고 우리의 근본 성품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이 한국적 전통을 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품 성'과 '감정 정'의 문제가 결국은 '마음 심'을 구성하는 양대 요소이고 일심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원효대사는 대승기신론 소와 별기를 통해서 팔만대장경 전체의 구조를 이거로 풀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심통성정, 성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단칠정 가지고 마음으로 보았던 조선조의 유학이나 이미 신라 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인간의 근본 마음을 다 보고자 했던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의 그런 전통이 결국은 동일한 것이며 조선조 가장 많았던 심통성정의 '성'과 '정'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이 결국은 그 용어는 달랐어도 돈오점수와 돈오점수의 논쟁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을 보는 관점과 논쟁, 이것이 '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됐고 '성품 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 하는 문제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의 불교와 유교의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으나 처음에는 주제를 쭉 길게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을 뽑아서 심학이 무엇이냐, 한국의 심학이 무엇이냐를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에서 말하는 '중'과 '화'. 중용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중'과 '화'입니다. '중과 화의 문제가 우리의 불교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조선 유교에서는 어떻게 발전했으며 이것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동일한 패턴의 논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화(中和)의 문제를 가지고 보고요. '가운데 중(中)' 자라고 하는 거, 유교에서는 중용이 핵심이고 불교에서는 중도가 핵심인데요. 불교의 중도와 유교의 중용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사상사에서는 어떻게 서로 인연을 맺으면서 학술적으로 펼쳐졌고 유교와 불교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한국 불교와 유교를 심학적 전통으로 살펴보는 첫 번째 주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퀴즈

1. OX퀴즈

문제: 한국불교와 한국유교의 공통점을 '심학(心學)'으로 보는 관점은 한국정신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시각이 될 수 있다.

정답: ○
설명: 불교와 유교를 회통할 때 심학으로 회통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2. OX퀴즈

문제: 조선 성리학의 주제는 심즉리(心卽理)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설명: 조선 성리학의 주제는 심즉리(心卽理)가 아니라 성즉리(性卽理)이다.

3. OX퀴즈

문제: 퇴계 이황 선생이 중시했던 책 가운데 심경부주(心經附註)는 불교의 반야심경에 대해 주석한 책이다.

정답: ×
설명: 심경부주(心經附註)는 유학 가운데 마음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서 주해한 유가서이다.

4. OX퀴즈

문제: 조선 유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 하여 성(性)과 정(情)을 합하여 마음을 설명한 것이다.

정답: ○
설명: '심통성정(心統性情)'은 마음을 성(性)과 정(情)의 통합으로 본 것이다.

5. OX퀴즈

문제: 조선 유학의 사단칠정논쟁에서는 성(性)과 정(情)의 문제를 사단인 이(理)와 칠정인 기(氣)의 문제로 놓고 본격적으로 담론한 것이다.

정답: ○
설명: 주자학의 이기론의 문제를 보다 깊이 논쟁한 것이 조선 유학의 논쟁이었다.

Ⅳ. 참고문헌

- 문광, 『한국과 중국 선사들의 유교 중화 담론』, 서울: 불광출판사, 2020.
- 문광, 『탄허선사의 사교회통사상』, 서울: 민족사, 2020.
- 아라키 겐고 지음, 심경호 옮김, 『불교와 유교』, 예문서원, 2000.
- 탄허, 『부처님이 계신다면』, 교림, 2001.
- 탄허,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교림, 2000.